

일본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

건국대학교

リ ウンギョ

学籍番号 k2690005

저는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살아왔기에, 혼자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일본에 오기 전에 정말 잘 지낼 수 있을지 무척 걱정했습니다.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 자체는 한국에서 많이 연습했고, 청해 같은 경우는 귀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문제없었기에 다른 교환학생 분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.

실제로 일본에 와서 오토와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에는,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건지 생각한 것보다는 잘, 특별한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. 네모필라가 피는 철에 꽃구경을 가거나, 묘가다니역 앞의 정식집에서 다양한 메뉴에 도전해보거나, 원래 전공 공부를 위해 전시를 보러 가거나. 한국에서는 못 할만한 경험도 잔뜩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





하지만 이 생활이 이어지며 점점 걱정했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. 감기에 걸리고, 몸살이 나고,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하지만 함께 오챠대에 온 소중한 친구인 가은 언니와, 친절하게 뭘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신 이치하라 선생님, 곤란한 일은 없는지 물어봐 주었던 튜터 코토노, 그리고 든든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신 이지원 선생님, 그 외에도 다양한 분들 덕분에 이렇게 학기가 끝날 때까지 어찌저찌 버텨서,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

그리고 오챠대 주변은 치안이 무척 좋고, 맛있는 음식점도 많아서,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. 분명 전 이 오챠노미즈여자대학이 아니었다면, 제대로 된 교환학생 생활을 보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에 이 대학에 올 수 있어서,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곁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합니다.